

또 하나의 '공익 예능' 탄생 웃음 × 선한 영향력



7월 27일(월) 첫 방송

신개념 PPL 버라이어티 예능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연출: 김정옥/이하 <텔레그나>)이 오는 7월 27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텔레그나>는 'PPL도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색다른 발상에서 출발한 국내 최초의 PPL 예능이다. 지난 4월에 선보인 파일럿 방송에서 유세윤, 양세형, 장도연, 김동현 등이 물불 안 가리는 PPL 대결을 펼쳐 큰 웃음을 주었고, 수익금과 PPL 상품은 기부하여 새로운 공익 예능의 탄생을 알렸다.

정규로 돌아오는 <텔레그나>는 '서머 에디션'으로 꾸며져 더욱 강력한 웃음과 함께 착한 PPL 완판에 도전한다. 파일럿 방송에서 막강한 코믹 케미를 선보인 4인방 유세윤, 양세형, 장도연, 김동현이 정규 멤버로 출격하고, 매회 특급 게스트들이 등장해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을 보탠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을 통해 '브랜드 K' 참여 중소기업들이 <텔레그나>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공개된 게스트 라인업에는 반찬계의 대모에서 PPL까지 접수하러 온 김수미를 시작으로 '대세 보컬' 크러쉬와 파일럿 방송에서 '논산 딸기 일시 완판' 기록을 세웠던 가수 김재환, 막강한 입담의 배우 김수로, 가요계 대표 '센 언니' 제시와 백지영, 파일럿 멤버인 가수 송가인, '믿고 보는' 위너 송민호, '힙한 언니들' 마마무 화사와 홍진영이 출격한다.

첫 촬영에서 김수미와 김재환, 멤버들 간의 '환장의 PPL 케미'가 터지며 대박 조짐을 예고했다. 이 밖에 크러쉬, 백지영, 송가인, 화사 등 쟁쟁한 보컬리스트들의 특별한 '스페셜 듀엣 무대'는 이번 <텔레그나>만의 또 다른 시그니처 포인트다.

<텔레그나>에서 방송되는 '브랜드 K' 참여 중소기업들의 PPL 제품은 방송 이후 GS프레시몰 '텔레그나 전문관'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을 위한 '숨은 PPL 찾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상에 없는, 신개념 PPL 버라이어티 <텔레그나>는 7월 27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2020 상반기 포상

7월 1일(수) 목동 SBS 사옥 13층 SBS홀에서 2020년 상반기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2020 상반기 작품상 최우수상

<궁금한 이야기 Y 500회>(이광훈) | <낭만닥터 김사부 2>(홍성창)

2020 상반기 작품상 우수상

<맛남의 광장>(이관원) | <붐붐파워>(송경희) |
<2020 국민의 선택>(한승희) | <썩자! 우리 사이로(4.15)>(조울선) |
<고막 메이트>(옥성아) | <스토브리그>(홍성창)

2020 상반기 작품상 특별상

<SBS스페셜> '풀끼리' 대표 최정호 |
<SBS 8뉴스> '2020 트랜스젠더 인권 기획 연속보도' 작가 김유미 |

<낭만닥터 김사부 2> 프로듀서 유인식 |
<낭만닥터 김사부 2> 작가 강은경 | <불타는 청춘> 작가 장정희 |
<맛남의 광장> 개그맨 양세형

2020 상반기 인센티브상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미운 우리 새끼>,
<백종원의 골목식당>, <런닝맨>, <정글의 법칙>, <집사부일체>,
<맛남의 광장>, <트롯신이 떴다>, <선거방송기획팀>,
<두시탈출 컬투쇼>, <붐붐파워>, <박소현의 러브게임>,
<김영철의 파워FM>, <이숙영의 러브FM>

2020 상반기 비전실현상

미디어전략팀 조세현 | CMS팀 이영주 | 콘텐츠기획팀 한창진 |
아나운서팀 이병희 | 시사교양본부 이한기 | 예능본부 권형구 |

라디오편성기획CP소속 이경렬 | 재무팀 차상은 | 기술기획팀 하태운

2020 상반기 특별공로상

SBS A&T 제작기술팀 김명권

2020 2분기 특종상 금상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송성준, 정반석, 안희재, 조윤하

2020 2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2020 트랜스젠더 인권 기획 연속보도' 권영인, 이경원, 최재영, 배정훈,
홍성용, 이병주, 신동환

2020 2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리그 오브 곰뽕지' 조성원, 이호건, 한동훈, 조창현, 김승태, 박주영, 황승호



‘SDF Diary’로 2020 SDF 본격 시동

SBS의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플랫폼 SDF(SBS D Forum)는 올해 주제를 ‘겪어 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The World We've Never Experienced: New Ways to Survive)’으로 정하고 해안을 찾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과 학교, 일터와 상점에서 지금껏 당연히 여겼던 상식과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 개인과 기업, 국가, 국제 사회는 막연한 불안 속에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올해 SDF팀은 이런 복합적 위기 속에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미

래를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만난 여러 실험(Experiment)과 담대한 도전(Challenge), 통찰(Insight)을 ‘SDF 다이어리’를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구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SDF 다이어리는 현재까지 총 11편의 메일이 발송됐는데, ‘원격 수업을 통해 본 학교의 미래’, ‘재택근무와 3차원 가상공간’, ‘언택트 공연’과 ‘급부상하는 생활권 로컬(Local)봄’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다. 매주 SDF팀 소속 기자들과 작가가 번갈아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다양한 시선들을 취재한

결과물로, 팀원들은 포럼 준비 과정에서 갖게 된 의문과 고민을 공유하고, 구독자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포털에서 ‘SDF 다이어리 구독하기’를 검색하면 된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구독 가능하다.

한편, 올해 SDF는 10월 30일(금), 상암 SBS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예정이다. SDF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한 ‘버추얼 대면’ 포맷을 준비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관객들과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초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을 도입한 ‘랜선 포럼’ 방식이다. SBS 예능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에서 처음 고안했던 형식을 차용해 포럼의 형식에 맞게 새로운 포맷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SBS, 2020년 상반기에도 2049 시청률 1위

SBS가 2020년 상반기 2049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의 상반기(1~6월) 채널별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SBS가 2.48%(이하 수도권 기준)로 1위에 올랐다. 예년에 비해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2049 시청률 2%대를 넘긴 채널은 SBS가 유일하다.

2위는 MBC(1.9%), 3위는 KBS2(1.77%)가 차지했고, tvN이 1.55%로 바짝 지상파의 턱밑을 추격하고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별 2049 시청률 TOP 30을 보면, SBS는 무려 10개 프로그램의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포진시켰다. tvN이 6개, KBS와 MBC 각각 4개, TV조선과 JTBC는 각각 3개의 프로그램을 TOP 30에 올렸다.

TOP 30 안에 든 SBS 프로그램은 <낭만닥터 김사부 2>, <스토브리그>, <하이예나>,

<미운 우리 새끼>, <더 킹 : 영원의 군주>, <런닝맨>, <굿캐스팅>, <골목식당>, <정글의 법칙>, <집사부일체>로, 드라마와 예능이 각기 5개씩 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2위에 오른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전 방송사 통틀어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좋은 성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상반기 평균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채널	SBS	MBC	KBS2	tvN	KBS1
시청률(%)	2.48	1.9	1.77	1.55	1.28

프라임타임 평일 19:00-24:00 / 주말 18:00-24:00

상반기 프로그램별 2049 시청률 TOP 30

※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시청률(%)
1	tvN	토일드라마(사랑의 불시착<본>)	9.7
2	JTBC	금토드라마(부부의 세계)	8.7
3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7.8
4	SBS	월화드라마(낭만닥터 김사부 2)	7.5
5		금토드라마(스토브리그)	7.1
6	JTBC	금토드라마(이태원 클라쓰)	7.1
7	tvN	삼시세끼 어촌편 5<본>	6.6
8	MBC	나 혼자 산다	6.5
9	KBS2	주말드라마(한 번 다녀왔습니다)	6.3
10	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	5.8
11	KBS2	주말드라마(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5.4
12	MBC	놀면 뭐하니?	5.2
13	SBS	금토드라마(하이예나)	5.0
14		미운 우리 새끼 다시 쓰는 육아일기	4.8
15		금토드라마(더 킹 : 영원의 군주)	4.5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시청률(%)
16	MBC	구해줘! 홈즈	4.2
17	tvN	토일드라마(사이코지만 괜찮아<본>)	4.1
18	TV CHOSUN	미스터트롯의 맛	3.9
19	tvN	신서유기 7 홈커밍<본>	3.8
20	KBS2	1박 2일	3.8
21	tvN	토일드라마(하이바이, 마마!<본>)	3.6
22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3.5
23	TV CH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3.4
24	SBS	런닝맨	3.3
25		월화드라마(굿캐스팅)	3.3
26		백종원의 골목식당	3.2
27		정글의 법칙	3.0
28		동거동락 인생과와 집사부일체	3.0
29	MBC	출발! 비디오 여행	3.0
30	JTBC	아는 형님	2.9



미운 우리 새끼 200회

“다시 한번 도약해서 더 높이 나는
〈미우새〉 만들겠다”

- 박종원 차장대우(예능4CP 소속)

7월 26일에 200회를 맞는다. 언제부터 〈미우새〉와 함께했나?

2017년 3월, 〈미우새〉가 금요일 밤에서 일요일 밤 9시로 옮길 때 합류했다. 생각해 보니 이상민 씨가 4분의 1 하우스로 이사 가면서 〈미우새〉에 처음 합류했을 때와 시기가 같다. 메인 연출은 작년 말부터 맡았다.

인기 예능의 연출을 이어받는다든 게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걱정부터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처음엔 그냥 좋았다. 인기 프로그램이지, 게다가 메인 PD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않나?

3년 가까이 해온 프로였기 때문에 정말 편했고, 선후배 PD들, 작가들과도 잘 맞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 팀 내에서 농담하는 횟수가 줄어든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미우새〉가 지금 ‘쉽지 않은’ 구간에 놓여있다. 프로그램의 퀄리티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을 해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걱정만 하다가는 프로그램이 ‘노잼’이 된다. 깔깔거리면서 한 회 한 회 재밌게 촬영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나?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의 일상을 보면 지루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우새의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고 섭외하는 일이 어려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일이다.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미우새 모임’처럼 미우새끼리 뭉쳐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생긴다. 새로운 미우새 발굴과 함께 미우새 두 명, 혹은 세 명 등 조합의 새로움을 찾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특별히 눈길이 가는 미우새가 있나?

다들 눈길이 가지만 오민석, 김호중 씨에게 좀 더 눈길이 간다. 오민석 씨는 평소 멀쩡하게 잘 생긴 미남인데 수맥이나 풍수지리 등 독특한 방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 생뚱맞게 웃기는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합류한 미우새인데 먹을 것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 집중력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헤헤”하고 웃을 때, 그 모습이 참 순수해 보인다.

입사할 때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나?

2008년에 교양 PD로 입사했는데 동기인 예능 PD(도준우)와 맞트레이드된 특이한 케이스다. 당시에는 따뜻한 웃



음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신장개업〉,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끝이 궁금하면서도 살짝 찜한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장르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매주 시청률의 노예가 된 것은 PD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의 목표다.

끝으로 한마디

2017년~2018년, 〈미우새〉 황금기 때는 시청률이 매주 20%를 넘는 게 너무나 오래 지속돼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놀라운 기록이었다.

〈미우새〉의 독주를 잡기 위해 각 방송사에서 파상공세를 하고 있다.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만큼 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면도 있다. 누구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도약해서 더 높이 나는 〈미우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우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미우새〉에 계속 애정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물농장사업프로젝트팀, 대명 소노호텔&리조트와 제작 협찬 및 위탁 운영 계약 체결



SBS 동물농장사업프로젝트팀은 7월 8일(수) 대명 소노호텔&리조트와 제작 협찬과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말 반려동물 복지 및 힐링 공간 개발을 위한 동물농장사업프로젝트팀과 대명 소노 그룹 간 MOU 체결에 이은 실질적인 성과이다.

계약은 SBS가 〈TV 동물농장〉 야외 녹화와 VCR 협찬, 애니멀봐 디지털 광고와 브랜드 콘텐츠 제공, 위탁운영사인 포레스트(대표 한재웅, 이찬종)를 통해 공연, 이벤트, 훈련 프로그램을 대명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TV 동물농장〉 제작진은 7월 14일(화) 일산에 위치한 대명 ‘소노캠 고양’과 흥천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야외 녹화를 진행했으며, 이는 7월 19일(일)과 26일(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다.

한편, 대명 소노그룹의 소노펫앤컴퍼니는 지난 10일(금) 고양 소노캠과 흥천 비발디파크에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소노펫클럽&리조트’를 오픈했다. ‘소노펫클럽&리조트’는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된 곳으로, 펫 카페와 놀이터, 보딩 시스템, 동물병원(고양) 등을 갖췄다.



모비덱스튜디오, 사내외 손잡고 유튜브 라이브·TV 넘나드는 사례 만든다



모비덱스튜디오는 LGU+와 손잡고 유튜브 SBS Entertainment 채널을 통해 <아이들나라와 함께하는 엄빠교실>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는 SBS TV <꾸러기 탐구생활> 여름 특집으로도 방송된다.

<아이들나라와 함께하는 엄빠교실>은 육아와 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고민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별하고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육아 정보 소통 라이브 쇼’다. MC는 15년째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를 진행해온 베테랑 DJ이자, <영재발굴단>을 통해 자타 공인 육아 전문가로 거듭난 김태균이 맡았다.

7월 19(일)부터 10주간 유튜브 SBS Entertainment를 통해 진행될 라이브 방송에서는 독서부터 성, 영어, 유치원 생활 등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첫 회에는 ‘구름빵’, ‘알사탕’ 등 인기 그림책을 펴내,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그림책 작가 백희나와 함께 ‘독서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편집 및 추가 제작을 통해 7월 27(월), 28(화) 양일간 SBS TV <꾸러기 탐구생활> 여름 특집으로도 방송된다.

<아이들나라와 함께하는 엄빠교실>은 부서 간 협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LGU+와 프로젝트 진행을 성사시킨 마케팅솔루션팀은 물론, 생중계를 진행하는 모비덱스튜디오, 그리고 유튜브/페이스북 채널을 통한 클립 운영 및 홍보를 담당하는 콘텐츠프로모션팀과 예능D스튜디오, <꾸러기 탐구생활> 특집 제작을 맡은 콘텐츠파트너십팀 등이 힘을 모아 예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레퍼런스를 남길 예정이다.



SBS미디어그룹의 매출을 책임진다 - 신입사원 선발

7월 1일(수), SBS M&C는 새로운 Market Changer 신입사원 6명을 선발했다. SBS미디어그룹에서 코로나 시대 처음으로 뽑은 이번 신입사원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인적성 검사, 마스크 착용, 대강당 대관 및 아크릴판 설치 등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전형으로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70: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무사히 전형을 마쳤다.

마지막 입문교육에서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매출 목표, 상품기획 및 영업활동 등 현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판매액은 가게 손님을 위한 마스크 기부로 SBS M&C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험도 쌓았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입문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배우기 위한 자발적 프로젝트 기획과 운영이 눈길을 끌면서 지역 방송사에서 ‘새로운 기업문화/신입사원’이라는 주제로 취재해 가기도 했다.

순환교육을 마치고 부서 배치를 받은 신입사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센스 있는 사원 성장기를 그려보겠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출근하고, 열정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다” 등의 소감으로 입사의 기쁨을 전했다.



과라라 미디어교육센터, 코로나 시대 교육 방송의 전초 기지 역할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위치한 과라라 미디어교육센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탄자니아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과라라 미디어교육센터는 SBS와 굿네이버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손잡고 진행한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2017년 1월 문을 열

었다. 특히 SBS는 PD와 TV/라디오 기술감독, 미술/카메라 감독 등을 파견하여 현업의 기술과 경험을 현지 요원들에게 전수한 바 있다. 탄자니아 교육부는 현재 휴교령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보급률이 낮은 인터넷 대신 라디오와 TV를 활용해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잔지바르 자치정부는 과라라 미디어교육센터를 교육방송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SBS의 방송제작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잔지바르 방송인들은 연출, 기획, 촬영, 편집 등을 주도하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잔지바르 공영방송사(ZBC)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라디오 채널로도 확대 송출될 예정이다. 이 방송으로 잔지바르 초·중등학생 약 25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고양본부 류상우 PD 안식년



시사고양본부 류상우 부장이 8월 안식년을 맞이한다. 류상우 부장은 1993년 경력 공채로 SBS에 입사한 뒤 <행복찾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TV 동물농장>, <생방송 모닝와이드>, <생방송 세븐데이즈>, <SBS스페셜> 등을 연출했으며 현재 <열린TV 시청자 세상>을 담당하고 있다.

류상우 부장은 1997년 <생방송 행복찾기>로 백상예술대상 특별상을 받았으며, <행복찾기> ‘300회 특집 입양, 이제는 기쁨입니다’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로 2000년 제27회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2001년 6월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다.